

온몸으로 느껴요

글 | 송지혜

그림 | 조예원

글 | 송지혜

그림 | 조예원

편집 | 김은파, 이수인, 이정아

편집 디자인 | 이해명

목소리 | 황창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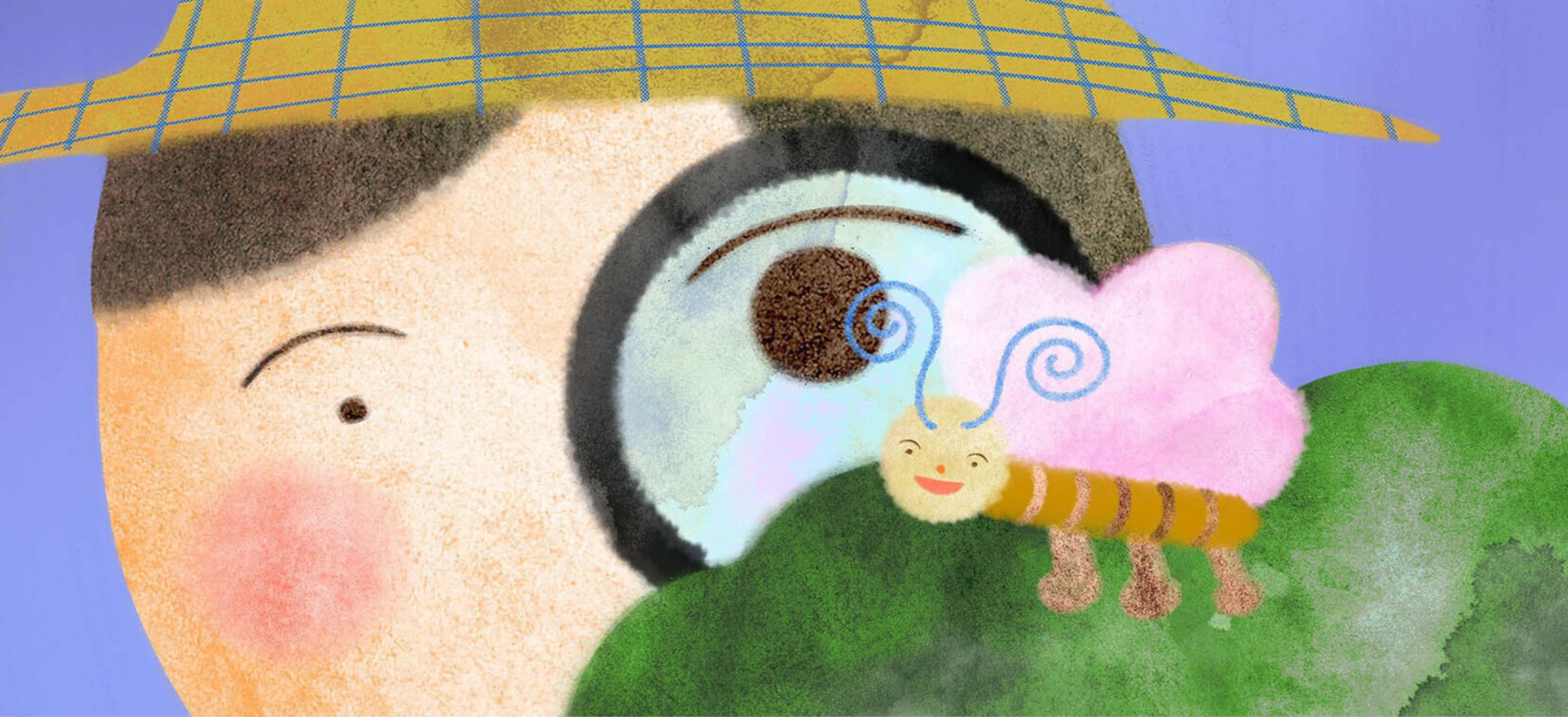




빨간색 아이스크림이
먹음직스러워 보여요. 퐁퐁, 딸기
냄새도 나고요. 혀를 가져다 대니
무척 차갑고 달콤해요.
아이스크림 콘을 씹으니
바삭바삭 소리가 나네요.



아이스크림을 먹는 데도 우리 몸은 참 바빠요. 색과 모양을 보고, 냄새를 맡고, 피부로 느끼고, 맛을 보고, 소리를 듣지요. 그 덕분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



눈은 물건의 색이나 모양, 크기,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이 너무 세면 눈을 다칠 수 있어요. 눈이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적당한 빛이 필요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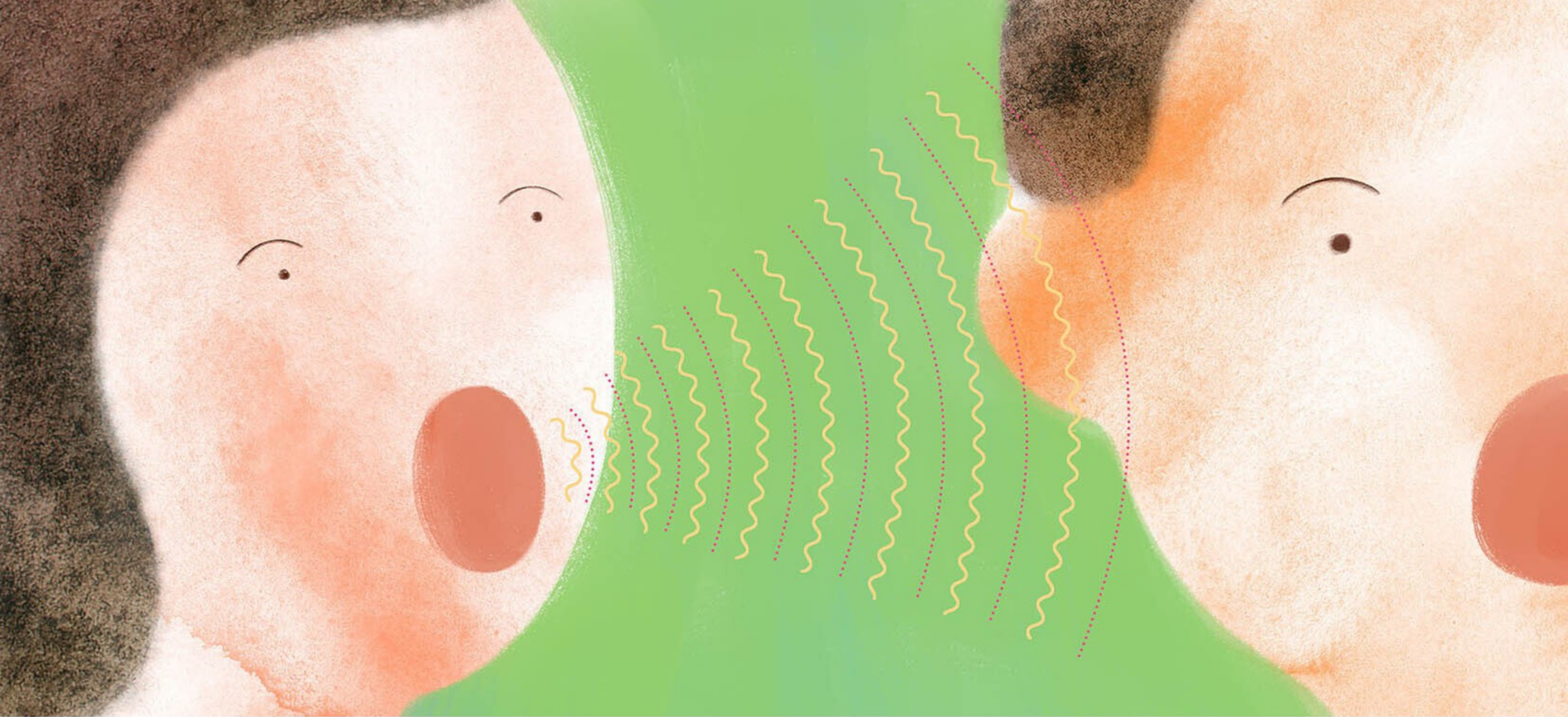
입을 아 벌리고 혀를 내밀어 봐요. 혀바닥에 오돌토돌하게 생긴 것들로 단맛, 짠맛, 신맛, 쓴맛을 느낄 수 있지요. 매운맛은 왜 없냐고요?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니라 얼얼해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.



음, 향기로운 꽃 냄새!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알갱이로 떠다니고 있어요. 숨을 쉴 때 이 냄새 알갱이가 코 속으로 들어오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되는 거랍니다.



음식 맛을 느낄 때는 우리 코와 혀가 함께 일해요. 맛뿐만이 아니라 냄새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코가 막히면 냄새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.



세상은 항상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.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고요?
친구가 옆에서 ‘아!’ 하고 소리를 내면 주변 공기가 빠르게
떨리지요. 귓구멍으로 들어온 이 떨림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아내는
거랍니다.



앗, 뜨거워! 하마터면 뜨거운 물에 손을 델 뻔했어요. 뜨겁다, 차갑다, 축축하다, 딱딱하다, 물렁하다, 따갑다... 이 수많은 느낌은 바로 피부 덕분에 알 수 있는 거예요.



이처럼 눈, 혀, 코, 귀, 피부는 다양한 느낌을 전해 주어요. 서로 도와 가며 우리 몸을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지요. 모두 모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랍니다.

“은뎡으로 느껴요” is licensed under CC BY 4.0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.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, visit <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/>.

© 2019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